



샤미나드의 해

2011 년 6 월

담당: 라틴 아메리카 MLC

주제: “새로운 세상에서의 선교사 윌리엄 요셉 샤미나드”

이번 달의 세부적인 일정들

- 2011 년 6 월 2 일: 주님의 승천: Luke 24:46-51
- 2011 년 6 월 12 일: 성령강림절 : Jn 20:19-23

다락방(최후의 만찬장소)에서의 시간

6 월 2 일- 12 일(매일)

성령께 드리는 로베나

“마리아와 제자들, 예루살렘의 첫 번째 공동체”

아래의 슬로건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오시는 성령을 무한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망토의 보호아래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현존 안에 둡니다. 우리는 또한, 창설자 복자 윌리엄 요셉 샤미나드 신부님의 탄생 250 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올해를 기념하며 성령께 기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열망하는 마음들, 개인적인 인내심 그리고 일원으로서의 노력들과 기도와 희생의 하는 동안의 충돌 안에 은총의 충만함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고, 이것은 평신도와 봉헌된 마리아니스트로서의 서약과 사랑을 새롭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A) 매일의 시작기도:

주님, 저희의 삶의 순간에서,
저희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일치된,
새로운 성령강림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마리아와 함께 협력한다는 것을 믿으며,
마리아께서 풍성한 결실을 만들었던 같은 성령 안에
저희 자신이 함께 있으며,
저희의 삶, 또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며,
저희가 어디에 보내지든지 저희는 생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 물이신 성령이여,
저희를 정화시키시고 저희의 삶이 풍성하게 하소서.
오, 불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선교사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소서.

오, 바람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활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저희를 들어올려주소서.

오, 기름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저희는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저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창설자 복자 윌리엄 요셉 샤미나드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를 새로운 마리아니스트 성령강림으로 일으켜 주시고,
선교로 나아가도록 하소서. 아멘.

찬가 (각 지역 및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서)

기둥의 성모여, 저희에게 신앙 안에서의 견고함과 희망 안에서의 확신 그리고 사랑 안에서의 향구함을 주소서.

B) 성령의 청원기도

오 주님, 당신의 첫 번째 제자들처럼 저희도 모여, 한번 더 성령께 간청합니다. 저희는 예수님 부활의 확신이 저희에게 주는 기쁨과 열망을 담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참다운 선교사로서의 당신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견고함과 일곱 개의 선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간청합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일곱 가지의 선물들.

효성의 성령,
지식의 성령,
통달(분별)의 성령,
슬기(지혜)의 성령,
의견의 성령,
하느님의 두려움의 성령,
균센 의지(인내)의 성령.

(일곱 개의 초에 불을 켜다)

C) 성령의 짧은 찬가

모두: 성령이여 오소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내려오소서.

혼자: 성령이여 오소서!!

모두: 성령이여 오소서!!

짧은 청원기도 찬가

모두: 성령이여 오소서!!

D)

오 주님, 당신의 일곱 개의 선물들이 저희에게 자비의 열정적인 정열을 불어 넣어 주시고, 자식으로서의 의무가 저희의 가장 약하고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로 향하도록 저희의 서약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할 것을 다시 선언하며 당신에게 청합니다.

오 성령이여, 삶의 증여자시고 저희의 변호자시여, 신앙의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는 이 기둥의 이미지로 보이는 마리아께서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고 마리아여, 당신의 아드님의 첫 번째 걸음을 협조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그리스도의 깊은 이해 안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E) 혼자: 오, 성령이여 내려 오소서!!

모두: 오,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오,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오,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침묵 중에, 오직 선물인 일곱 개의 촛불에 불이 켜져 있다.

마지막 날, 잠시 동안 성체 조배를 한다.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

사제들이 우리에게 강복을 준다.

성령을 부르는 찬가로 마친다.(각 장소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